

	<h1>보 도 자 료</h1>	작성과	자연재난대응과
	<p><b>즉시 보도</b></p> <p>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	담당자	과 장 임재웅 사무관 신영섭
		연락처	044-205-5230 044-205-5231

## 정부, 현장중심의 피해예방활동 중점 추진

### - 범정부 폭염대책 점검회의, 우수사례 전파와 2차 피해 방지에 총력 -

-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(범정부 폭염대책본부장)은 8월 7일 관계기관\*과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폭염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였다.
  - \* BH위기관리센터, 농식품산업·복지·환경·고용·국토·해수부, 소방·경찰·기상청 및 17개 시도
  -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시의 저소득 취약계층 긴급복지\* 지원 등 자치단체의 다양한 우수사례가 공유되었다.
    - \* 서울시 「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폭염으로 인한 실직, 휴·폐업 등 생계유지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(30~100만원), 의료비(최대 100만원) 긴급지원
    - 특히,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충북 청주시, 전남 여수시, 경기 부천시의 부시장이 참석하여 특색 있는 사례를 발표하였다.
- 폭염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지난 8월 4일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수준의 '범정부 폭염대책본부'를 운영하고 있다.
  - 이를 통해 다양한 정책과 우수사례 공유가 활성화되고 정부와 자치단체 간의 협업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.
  - 한편, 자치단체에서는 매일 4천여 명의 공무원이 도로 살수, 실외 작업장 등의 취약지역 예찰, 취약계층 방문·안부전화, 무더위쉼터 점검 등을 실시하며 폭염피해 방지에 총력\*을 기울이고 있다.
    - \* 8.6일 예방활동: 도로살수 1,017대 21,087km, 노숙인 등 취약지역 예찰 2,492개소, 방문/안부전화 38,531/132,891회, 무더위쉼터 점검 8,706회, 가두방송 등 홍보 1,220,998회

- 아울러, 폭염이 장기화됨에 따라 농축수산물 피해와 적조 및 고수온으로 인한 어류 폐사 등 재산피해 확산에 관한 대책도 논의되었다.
  - 농축수산물과 관련해서는 피해상황과 수급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사전에 수급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비축물량 방출, 할인 판매 등의 대책을 차질 없이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.
  - 이와 함께, 적조 경계단계에 돌입한 남해안 지역은 특교세 5억 원을 황토 살포 등 긴급방제비로 지원하여 적조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였다.
  
-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은 “이제 폭염은 매년 찾아오는 상시적인 재난이 된 만큼, ‘한 여름 무더위도 한 철’이라는 호기스러운 말 대신 모두 힘을 합쳐 극복해야 하는 ‘무서운 재난’으로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.”라고 강조하고, “당장의 폭염 대응으로 바쁘겠지만, 관계부처와 자치단체에서는 내년도 폭염대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도 각별히 노력해 달라.”라고 당부하였다.

※ (붙임) 지자체 폭염대처 우수사례



(전북) 양산쓰기 캠페인



(전북) 전주빙상경기장 개방



(전남) 공공장소 얼음비치



(경기) 부천시 공공청사 활용한 무더위 잠자리 쉼터 운영



(충북) 청주시 군·소방·민간업체 협력 살수 확대